일체 만물만생이 佛 삶이 敎

☞ 17면에서 계속

지금도 쉬지 않고 지구가 돌아가는가 하면 우주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다가 내 이 육체 속의 자생중생들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육체가 쉬면서 돌아갑니까? 자는 것도 자는 게 아니고, 눈을 뜬 것도 뜬 게 아니에요. 보는 거, 듣는 거, 먹는 거, 하는 거, 만나는 거, 가고 오는 것이 어느 하나도 고정된 게 없어요. 그랬으니 공했죠? 내가 한 게 따로 없으니 물 한 컵을 마셔도, 아니, 더불어 같이 마신 거기 때문에 공식이죠. 보세요, 공생 · 공심 · 공용 · 공체 · 공식화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 먹을 때, 어떤 거 할 때, 어떤 거 봤을 때, 어떤 거 움죽거렸을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정한 겁니다. 일체 만물 만생이 모두 같이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래지, 개별적인 하나가 따로 있고 기도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기도라는 말을 안 합니다. 관이라고 그러죠. 기도라고 하면 여러분이 상대를 두고 하기 때문에 기도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 법당에 와서 부처님 앞에 삼 배를 올리든 일 배를 올리든, 일 배를 올려도 부처님 앞에 한마음으로 올리고, 일어날 때는 한마음으로 나와 같이 하나로 돌리고 일어나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리로 가도 하나요, 저리로 가도 하나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깨달을 수도 없거니와 진리를 파악할 수도 없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한 버스 안에 몽땅 타고 앉아서 버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니 사람으로 태어난 본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자기를 이끌어 주는 참 자기를 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숭상하느라 자기 배를 불릴 수 없는 어리석은 살림을 살지 마시고, 자기가 자활(自活)해서 모든 것을 남을 줄 수 있고 그 이개로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살았을 때의 생각이 온통 내 것만을 취하려고 하고, 남을 상하게 하더라도 나만 더 이익하게 뺏으려고 하는 마음, 늘 짝을 지어 살려던 오랜 습관의 의식, 내 몸뚱이가 나인 줄 알고 애착하며 살아오던 모든 관습이 의식의 덩어리가 되어 죽고 나면 모든 것이 실체로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착각의 의식으로 인하여 짐승들이 짝짓기를 하는 데도 좋아 보이고, 짐승들이 사는 집이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리로 그냥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 그냥 살아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방치하는데, 여러분이 사람의 의식으로 생활을 하고 사시다가, 만약에 새나 짐승이나 땅 속의 벌레나 독사가 짝짓기를 하는 데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잘 보십시오. 넝마는 넝마 전에 있고, 금은 금 방에 있습니다. 깡통은 깡통 점에 있고, 무쇠는 무쇠 점에 있습니다. 사람들도 천차만별로 끼리 끼리들 모두 모이는 겁니다. 그와 같이 자동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모습을 짓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의식으로 살다가 그런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개로 모습을 가지고 나왔다면 아무리 울고 발버둥 쳐도 '멍멍' 짖을 수밖엔 없는 겁니다.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나왔다면 그 모습으로 할 수밖엔 없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리 말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말을 해도 세상 사람은 들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답답한 거 자체가 지옥입니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재나 쌀을 곱게 해놓고 뭐가 됐는가 발자국을 보는 그런 일이 있었죠. 구렁이가 됐으면 구렁이 표시가 나고, 사람이 됐으면 사람 발자국 표시가 났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천당과 지옥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천당과 지옥이 현실에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 지금 닥치지 않았으니까' 하고는 등안시하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금으로 반지를 만들었다면 반지가 아무리 찌그러졌어도 금 방으로 가서 재생을 해서 나오지만, 무쇠나 깡통 종류라면 재생이 되도 다시 철 종류로 나오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앞길이 세세생생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부모에게도 관련이 되고, 자식에게도 관련이 되는 겁니다. 한 발짝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소홀히 생각 마십시오. 알고 지은 것은 현실에 알게끔 입력이 돼서 나오고, 모르고 입력이 된 것은 모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천차만별 마음의 도리가 이렇게 귀중하고 엄청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생활 과정에 있어서, 이거는 과거로만 돌릴 게 아니라 과거도 현실이요, 미래도 현실입니다. 영원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내가 일러 드리는 것은, 그렇게 과거에 살 때 입력이 된 것이 현실에 나오는 거니까 현실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걸어가다가 엎어지면 땅을 짚고 일어나듯이, 자기한테서 나오는 것을 자기한테다가 맡겨 놓고 지켜보고 체험해라 이랬습니다. 이것이 본래 참선입니다.

자동적으로 입력이 됐던 모든 것을 거기다 맡겨 놓고 입력을 시키면 과거에 입력이 됐던 것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면서, 넣으면 넣는 대로 그릇이 비고, 또 넣으면 그릇이 비고 넣으면 넣는 대로 그릇이 비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줄, 즉 말하자면 직결돼 있는 줄을 반야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반야줄을 쥐고 그래도 살아생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반야줄을 쥐고 갈 줄 알면, 요 다음에 죽어서도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 보현 보살들이 모셔가요.

그래, 우리가 살아서 이 도리를 모르면 죽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왔는지, 또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그건 헛 겁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름을 갖고 나온 인간이, 인간 되기도 어려웠는데, 수십 억 년을 거쳐서 모습을 바꿔 가면서 진화가 돼서 인간까지 올라왔는데 그냥 갈 순 없지 않습니까? 이런 도리를 알고서야 어찌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알게 모르게 입력시켜온 그 의식들을 다스려 자유자재한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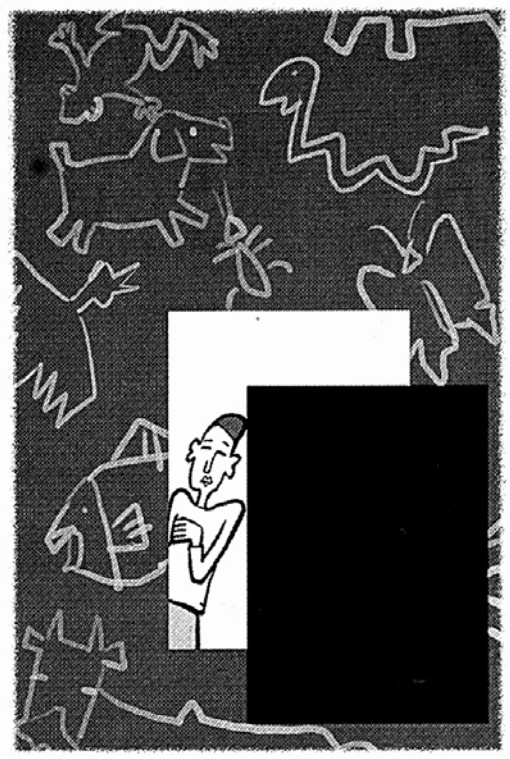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삶의 그림자처럼 따르는게 업식

깨달았다고 해서 여래가 아니에요. 개별적인 하나가 깨달으면 전체가 다 들려야만이 그것을 여래라 이름할 수 있습니다. 깨달은 사람이 수만 명이라 할지라도 깨달은 한마음 처에 같이 하기 때문에 여래인 겁니다.

여러분이 배울 때 잘 배워야지, 예를 들어 처음에 피아노를 배울 때 처음 배우는 거라고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삐뚤게 앉아서 해도 괜찮지, 요다음에 배워서 잘하지, 이럭하면 안 됩니다. 앉은 자세가 굳어져서 제대로 배울 수 없는 거와 같습니다.

그와 같이 인간도 내 마음으로부터 다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탓으로 돌리는 것이 우선이죠. 모든 게 나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소가 언덕이 있어서 비비는 거지 언덕이 없다면 비빌 수가 없고 소가 없다면 비벼지지도 않죠. 그와 같이 인간도 내가 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잘했든 못했든 내 탓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잘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못했으면 못한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잘하게 하는 것도 너밖에 없다! 하고 거기 놔라 이런 겁니다. 이렇게 생활에서 관한다 하는 것은 쉴 사이 없이 그대로 돌아가면서 생각나는 대로 관하는 거지, 관하는 장소가 익마저 전부 공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문 우리의 육신이 떨어지면 체가 없어지지만 의식은 그것을 몰라서 살아있을 때의 의식과 습으로 인해 마치 체가 있는 줄로 알고 있어서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들어가지도 못하고, 불에 타 죽을까 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말씀을 "허공을 걷는 길"에서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으로 죽으면 사람의 체가 있는 줄로 착각할 것이고, 또 사람의 의식으로 착각하고 있을 터인데 어떻게 해서 살아 있을 때의 자기 의식과 습에 따라 사람 아닌 다른 생물로 윤회할 수가 있는 것 인지요? 예를 들면 사람으로 죽으면 사람의 체가 있는 줄로 영혼이 착각할 터인데 어떻게 뱀이 사는 굴이 궁궐처럼 좋게 보일 수가 있는 것 인지요?

답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이든지 선업이든지 그림자처럼 따르는 것이 바로 업식입니다. 그 업식으로 말미암아 바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느냐, 짐승의 모습으로 나오느냐, 벌레의 모습으로 나오느냐, 새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느냐, 독사로 나오느냐,

> "내생에 새옷 입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데 왜 구식옷 들쳐 입고 떨어질까 애쓰세요"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 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불자님들이 꼭 읽어야 할 불교 신행의 지침서

신간

우룡 큰스님의 금강경 강설집!

생활 속의 금강경



지금 이 순간의 고난과 그릇된 마음을
항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깨달음의 마음, 지혜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마음공부를 잘 성취하고자 하십니까?

이제 금강경을 공부해 보십시오!
시대와 종파를 초월하여 불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금강경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생활 속의 금강경』은 일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룡 큰스님께서 그토록 어렵다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생활에 접목시켜 쉽고도 재미있게 풀이한 책입니다.

이제 『생활 속의 금강경』을 통해 마음 다스리는 법을 터득하시어 우주에 가득찬 지혜와 영광과 행복을 가득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무욕과 무 소유의 가르침을 오롯이 담아낸 핵심 경전, 금강경!

《이 책의 특징》
· 한글 번역의 문체가 아름답습니다.
· 심오한 금강경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이하였습니다.
· 일상생활과 접목시켜 강설함으로써, 삶의 현장에서 금강경의 가르침을 능히 응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감동을 주는 일화들을 많이 삽입하여 재미를 더했습니다.

신국판 / 304면 / 값 6,000원

불교신행의 주춧돌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하는가? 신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우룡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5,000

천수경 천수신앙

불자라면 누구나 독송하는 천수경에 대한 강설집. 경에 숨겨져 있는 참뜻, '천수경'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 준제진언, 여래 십대발원문까지 그 속에 숨어 있는 뜻을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어, 불자들을 깨달음으로 안내하는 좋은 길잡이가 됩니다.
혜국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예불을 올리는 불자들이 꼭 새겨야 할 마음가짐과 가르침을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엮은 오분향 예불문의 해설서. 불자들이 궁금해 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것들을 모두 담았습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타큰스님의 마지막 법문집. 불자의 근본 마음가짐에서부터 불교의 4대수행법인 참선 · 염불 · 간경 · 주력에 대해 자세히 설하고 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5,000

시작하는 마음

보조국사의 《초심》을 일타 큰스님의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엮은 책. 누구나 쉽게 불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하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7,000원

사칠, 그 속에 깃든 의미

제 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초입(初入)의 일주문에서부터 법당, 사물(事物), 석등, 탑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루어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값 7,000원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일타큰스님의 대표법문집. 고된 삶 속에서 혼들리며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맑고 주옥 같은 법문으로 행복의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을 일타 큰스님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해설해 놓았다. 이 책을 읽다보면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6,000원

육바라밀 수행법

특별한 수행자만이 아니라 일체 중생 모두의 성불을 보장하는 육바라밀 수행법!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의 여섯 가지 바라밀에 대해 그 정신과 실천 방법을 중심으로 쉽고도 재미있게 서술하였습니다.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과연 인간은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타 큰스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읽다보면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자기를 돌이보는 마음

《자경문(自警文)》은 야운스님이 자기를 돌아보고 깨우쳐 가는 속에 참된 자유와 행복이 발현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 지은 것이다. 구구절절 게으름과 방종을 막는 따끔한 말씀으로 빛을 돌이켜 스스로를 비춰본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6,000원

지장보살본원경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든 책.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참과 지장염불을 할 때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방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틀림없이 영가천도 업장소멸 소원성취 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 587-6612 · 팩스 : (02) 586-9078